

맞춤형 시범사업 KBS 지역국 활성화



CHEONGJU



DAEGU



JEONJU



GWANGJU



BUSAN

+

KBS 전체 구성원의 수는 4,600여 명. 그 가운데 1,000여 명이 서울과 수도권 을 뺀 전국 9개 총국에서 각 지역과 밀착 된 뉴스와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함으 로써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하 지만 KBS의 조직 효율성과 한정된 예산 배분이라는 현실적인 벽에 가로막혀 지 역 활성화 문제는 그 해법을 찾기 쉽지 않 았던 게 사실이다. 양승동 사장은 지난 8월 말 'KBS 혁신 중간 보고회'에서 이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역방송 활 성화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한 이후 처음 으로 KBS 지역국을 방문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인력 충원·방송장비 확충·노후 시설 개선 등 요구 쏟아져

지역국 직원과의 대화는 지난 1일 전주와 광주총국을 시작으로 10월 2일 청주, 4일 부산 그리고 5일 대구총국을 순회하는 일 정으로 진행됐다. 5개 총국마다 지역국 현황 및 업무 보고에 이어 직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이 본격적으로 쏟아졌다. 무엇보다 인력 부족 문제를 두고 쓴소리가 적지 않았다. 지역국에서도 여러 시청자 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뉴스와 뉴미디어 콘텐츠 등을 운영하고 싶지만 전문 디지털 요원은 물론 최소한의 인력조차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방송 장비 및 노후 시설 개 선, 지역국 현안을 종합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직통 기구 신설과 지역 총국장 제도 등 다양한 건의사항들이 허심탄회하게 전 달됐다. 이와 함께 지역국 뉴스가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이 되지 않는 문제들도 지적됐다.

“지역국 실태 면밀 조사… 지역 기반 시범사업 본격화”

이에 양승동 사장은 올해 하반기 200여 명 규모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며 지역국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인력 충원을 하 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지역국 실태를 면밀히 전수조사한 뒤 즉시 해결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고 내년 공사 창립일을 전후해 뉴미디어에 관련한 포괄적인 계획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결정된 지역방송 활성화 시범사업도 거론됐다. 제 주총국에선 지역 밀착형 데일리 시사뉴스쇼가 신설되고 광주총국에는 기자·피디·방송기술 등으로 구성된 뉴미디어 프로젝 트 운영 사업이 추진되며, 부산총국에는 인문학 강좌와 미디어 교육을 결합한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이 새롭게 마련된다. 양승 동 사장은 “지역국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지역국 활성화를 위해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것 들이 구체화되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가다듬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KBS 2라디오 부분 개편

“말보다는 좋은 노래를 가득 채웠어요”



KBS 2라디오(106.1MHz)가 더 좋은 음악을 가득 채워 다시 태어났다. ‘음악이 좋은 방송’이라는 본래 채널 취지대로 조규찬, 양파, 이세준 등 음악성과 입담을 겸비한 새로운 뮤지션 DJ들이 10월 1일부터 방송을 시작했다. 지난 달 있었던 2라디오 개편 설명회에서 박영심 부장(R프로덕션4)은 “말은 줄이고, 좋은 노래를 더 많이 들려줌으로써 타 채널과 차별화를 꾀했다”라고 개편 취지를 밝혔다. 새롭게 바뀐 2라디오 프로그램 DJ들을 만났다.



<매일 그대와 조규찬입니다>

“청취자의 이야기에 함께 질문하는 진행자가 되고 싶다”

조규찬은 뛰어난 보컬리스트이자 프로듀서다. 가수 활동 외 작사, 작곡, 편곡 등 다양한 방면에서 뛰어난 감각과 탁월한 음악적인 성과로 대중의 신뢰를 받았다. 라디오 진행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규찬은 1994년에 KBS 2FM(현재 KBS 쿨FM)에서 <조규찬의 팝스팝스>, 2000년대엔 <조규찬의 꿈과 음악 사이에> DJ를 맡은 경험이 있다. 그는 라디오에 거는 기대로 ‘듣는 행복’을 꼽았다. “짧지 않은 세월을, 음악을 ‘만드는’ 입장에서 살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듣는’ 행복을 잃어버린 것 같다. 매일 두 시간씩 청취자와 평범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좋은 음악을 들을 생각에 설렌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 매일 오전 9시

<임백천의 골든팝스>

“LP 시대부터 음악을 소비하는 시대까지, 음악 배달을 할 수 있어 행복하다”

명품 DJ 임백천의 장점은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물 흐르듯 편안한 진행과 해박한 지식이다. 그는 “K-Pop의 발전을 위해서도 영미(英美) 팝과 제3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라디오 MC 시대가 됐지만 LP에서 CD로, 또 인터넷으로 음악을 소비하는 시대까지 DJ를 하면서 ‘마지막 DJ’로 음악 배달을 할 수 있어 행복하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과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PD인 이희옥 PD는 ““올디스 붓 구디스(Oldies But Goodies)’라는 말처럼 <임백천의 골든팝스>는 중장년층에겐 청춘의 한때를 추억하는 시간을, 젊은 세대에겐 올드팝의 매력을 새롭게 느끼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매일 오전 11시

<양파의 음악정원>

“청취자들에게 새로운 활력과 휴식을 전해주는 하루의 쉼표가 되고 싶다”

양파는 1997년 가수로 데뷔한 이후, 이번 부분 개편을 통해 처음으로 라디오 DJ가 됐다. 어릴 때부터 ‘라디오 키즈’라 불릴 만큼 라디오와 음악을 사랑했던 양파는 <양파의 음악정원>을 ‘싱그러운 힐링타임’이라고 소개했다. “매일 낮 12시는 오전과 오후의 징검다리 같은 시간으로, 청취자들에게 새로운 활력과 휴식을 전해주는 하루의 쉼표가 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다양한 노래들을 듣고 많은 청취자들과 소통하면서 생각의 폭도 넓어지고 인생을 배울 수 있어서 좋다”라고 말했다. 재능 있는 뮤지션으로, 진솔한 친구로, 양파의 다양한 모습을 <양파의 음악정원>을 통해 만나 보자.

▶ 매일 낮 12시

사보가 만난 사람

‘유쾌함’과 ‘차분함’으로 청취자들 곁으로~

이번 개편을 통해 ‘대타’나 ‘임시’ DJ가 아닌 처음으로 본인의 프로그램을 맡게 되어 너무 기쁘다는 기타 잘 치고 노래 잘 하는 오빠, 유리상자의 이세준을 KBS 사보가 만났다.

10월 1일부터 방송이 시작됐다. 소감이 어떤가?

KBS에서 정식으로 프로그램을 맡게 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은 대타 DJ, 임시 DJ를 많이 했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이름이 들어간 프로그램 맡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여의도 간다’라는 말이 ‘방송국 간다’라는 말처럼 예전엔 많이 쓰였는데 그래서인지 방송하러 올 때마다 기쁘고 설렌다.

본인에게 라디오란 어떤 매체인지?

라디오는 별로 할 게 없던 시절에 친구 같은 소중한 존재였다. 그에 비해 요즘은 할 것들이 너무 많아졌다. 그럼에도 라디오를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감사해야 할 것 같고 보답을 하고 싶다. 처음으로 라디오 프로그램을 기다리면서 들었던 것은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였다. 인기 가수가 라디오 진행도 잘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같은 친숙함을 느꼈고 내심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내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도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청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프로그램은?

라디오라는 매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을 받다가 어느 순간 다른 것들에게 밀리게 되면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다. 버라이어티하게 TV와 비슷하게 가려고도 하고 인터넷 방송과 비슷하게 가려고도 하면서 일부는 성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은 다시 원래의 라디오, 라디오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자는 쪽으로 생각을 바꾼 것 같다. 세상이 복잡하고 화려해질수록 진솔하고 소박한 것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다. 그런 분들을 위한 진짜 라디오 방송을 만들어 가고 싶다.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자로서 본인만의 강점은?

가수다 보니 음악에 대해 보통의 분들보다는 폭넓게 알고, 관객들과 마주하며 공연을 했던 경험이 있어 청취자분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고 있다. 데뷔 초엔 라디오 가수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일주일에 고정 게스트 출연하는 곳이 10개 정도 됐었다. 90년대 후반은 가수에게 라디오가 주 매체였던 시대였는데 당시 라디오 가수로 엄청 활동했다. 이 시기 쌓았던 다양한 경험들이 라디오를 진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방송을 하면서 무엇보다 DJ와 청취자가 1:1 대화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냥 전화통화를 하듯 청취자들과 소통하고 싶다.



진행자 이세준
(오늘 같은 오후엔 이세준입니다) 매일 오후 2시

가장 본인이 애착이 가는 코너가 있다면?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게 내 본업이고 좋아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런 장점을 살리고 싶었다. ‘디제이 도전 천곡’은 청취자들이 홈페이지에 사연과 라이브로 듣고 싶은 노래를 신청하면 그중 한 곡을 선택해 직접 기타 치고 노래하는 코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연을 써준다. 청취자 반응이 ‘디제이 도전 천곡’ 코너 전, 후로 완전히 다르다. ‘두 시간 내내 라이브만 하자’라는 사연들이 올라오기도 한다. 코너 이름에 ‘천곡’을 넣은 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곡이 1년이면 240곡 정도가 되고, 4년이 되면 약 1,000곡이 된다. 그래서 적어도 4년 동안은 이 코너를 계속해보자는 마음으로 짓게 됐다.(웃음)



방송사 최초 KBS 성평등센터 공식 개소

KBS 성평등센터는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사 및 피해자 보호와 성평등 조직문화 구현, 성평등 관련 규정 제정 그리고 대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앞서 양승동 사장은 취임식에서 “미투 운동으로 대변되는 성평등 문제는 처벌 수위를 확실히 해 최대치의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관련 문제 해결에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또 지난 8월 KBS 혁신 중간 보고 및 2018 가을 신설 프로그램 설명회에서 KBS 성평등센터 설립 결정을 다시금 확인시키며 “성폭력 징계 시효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려서 처벌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지 표명의 연장선에서 구현된 KBS의 성평등센터가 향후 방송 언론계 성평등 조직 문화 정착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그 기대와 바람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

KBS 조직문화 성평등을 생각하다

성폭력 고발에서 시작한 미투 운동이 관련 법 개정과 성평등 사회를 향한 외침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KBS는 유의미한 첫 발을 내디뎠다. 국내 방송사 최초이자 사장 직속 상설기구로는 최초 사례로서 큰 화제와 주목을 불러 모은 KBS 성평등센터가 10월 1일부터 공식 개소했다. 그리고 이윤상 전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이 첫 KBS 성평등센터장으로 임명됐다.



INTERVIEW “방송계 성평등 조직 문화 성공 모델 만든다”

이윤상 센터장은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을 역임하고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독립적 인권침해 구제기구인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을 지내는 등 다년간 쌓은 현장 실무 경험과 관련 지식 등을 높이 평가받아 방송사 KBS 성평등센터장으로 최종 임명됐다.

KBS 성평등센터장으로 임명된 소감은?

KBS 성평등센터 신설에 대해선 센터장 모집 공고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선도적이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 방송사뿐만 아니라 공기업으로서도 거의 최초가 아닐까 싶다. 누구보다 앞서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이 사례가 잘 돼야 다른 곳에서도 확산될 수 있다는 책임감도 든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요즘 부각되는 성평등 이슈들은 사생활이 아니라 엄연히 우리 직장 생활에 있는 공적인 생활에 포함된 영역이고 대외적으로는 시청자들은 물론 공영 방송으로서의 역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성평등 센터는 직원들의 목소리도 듣고 고충도 듣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방송·언론계 내의 성폭력 문제와 위계 조직문화가 계속 부각되는데 공영방송 KBS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는 방송계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직장 내 성희롱 문제도 전형적인 위계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 가운데 하나다. 모든 조직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KBS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다른 방송사들에게 있어서 좋은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KBS가 성평등센터를 먼저 나서서 만들었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고 모쪼록 이 센터가 좋은 모델이 되어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기존 KBS 감사실 역할과 겹친다는 지적도 있다
국가에도 감사원이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독립 기구도 있다. 아직 헌법 기관으로서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그 정도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국제적으로도 합의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차별과 평등의 문제는 마땅히 인권의 문제고 그래서 감사의 영역과는 구별된다. 예컨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다면 성평등 센터에선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그리고 재발 방지 조치 등 종합적인 접근을 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저희의 가장 큰 목표는 조직 문화를 개선한 데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감사실과는 지향점이나 역할, 기능면에서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윤상 KBS 성평등센터장

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집단만의 목소리가 아닌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로를 연구하려고 한다. 사보를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저희를 찾아주셔서 아이디어도 전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면 더욱 좋은 통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KBS 성평등센터를 향한 기대도 많지만 우려나 논란도 쏟아지고 있다.

처음 만들어지는 조직이다 보니 당연히 여러 가지 우려와 의문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KBS는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유통하는 곳이며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한 곳이다. 하지만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콘텐츠가 창의적이고 사회를 선도하는 콘텐츠가 되긴 어렵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KBS 직원들이 마음 편히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환경과 평등한 조직문화를 구현하는 것은 굉장히

다년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볼 때 KBS 성평등센터의 우선순위 과제는?

무엇보다 직원분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것이다. 직원분들을 많이 만나고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의 신뢰 없으면 여기는 기능을 할 수가 없다.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는 문턱 낮은 공간이 돼서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고 여기서 자신의 고충이 최대한 해결되는 것을 직접 경험해보시면 좋겠다. KBS의 특징은 굉장히 다양한 직군이 있다는 것이다. 사무직 중심의 일반 회사와는 확연히 다르고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고충이 다 일률적일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공부하고 있

KBS 구성원과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사실 시간이 제법 걸리는 큰 프로젝트이다.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정착을 해서 중요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등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걸어 나갈 것이다. 이 길에 KBS 구성원들과 시청자들이 끊임없는 관심과 문제 제기를 계속해주시길 부탁한다. 그래야 저희가 더 힘을 받고 더 올바른 방향으로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Q&A로 배우는 광고·협찬고지

방송 제작에 있어서 광고와 협찬은 필수나 다름없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협찬 목록이 표시되거나 상품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장면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칫 과도한 광고 효과로 심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청자의 반감을 살 수도 있다. 모르면 손해인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규정과 위반 사례 그리고 이번 달부터 시행된 협찬고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심의실의 도움을 받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방송광고와 협찬고지의 차이는?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광고”는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하는 것으로 방송 프로그램 전후에 편성되는 광고 및 중간광고, 가상광고, 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간접광고 등이 포함된다. “협찬고지”는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인력,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혹은 상호 등을 고지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협찬고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번 협찬고지 규칙 개정은 일부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고지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공익 캠페인, 행사 방송, 그리고 방송 예고와 방송 프로그램 종료 시 1회에 한해서 협찬고지를 하도록 고지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기존 협찬고지 내용 외에 협찬주의 홈페이지 주소를 고지할 수 있게 허용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만 허용됐던 협찬고지 위치를 하단 또 우측 중 사업자가 선택해서 고지하도록 개정됐다.

올림픽 같은 행사 방송 예고 시 협찬고지 규정도 달라졌다는데?



▲ 예고 시 협찬고지 예시

올림픽이나 영화제 같은 공익성 행사와 방송 프로그램 예고 시 협찬고지 횟수는 과거 때 시간당 1회를 초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방송 사업자의 자율성을 고려해 예고 협찬고지 회수를 중앙 지상파는 매시간당 각 2회, 지역 지상파는 각 3회로 확대했다. 추가로 공익 행사 및 방송프로그램 예고 시 협찬고지는 화면 하단의 1/4 크기 내에서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등을 표시할 수 있다. 단 원칙적으로 그 공익행사를 해당 방송사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고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송출하는 경우의 예고 시에 한한다.

프로그램 내 가상·간접광고가 포함된 경우 광고 고지 자막을 방송 중간에 크게 표시해도 괜찮은지 궁금하다.



▲ 가상·간접광고 고지 예시

규정상 가상·간접광고 고지는 상단 예시처럼 반드시 방송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에 자막으로 표기해서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간단하게 보여도 광고 고지 자막을 프로그램 시작 전에 노출하지 않아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1,200

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있다. 또 가상광고 고지 자막 크기는 화면의 1/16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접광고만 고지할 때는 자막 크기 규정을 적용받지 않지만 가상광고와 함께 고지할 경우 크기 1/16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60분 드라마에서 간접 광고 상품 일부를 모자이크했는데 간접광고 노출 시간에 포함되는 건지 궁금하다.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브랜드 로고 및 이름)가 모자이크로 처리된 부분은 간접광고 노출 시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시청자가 간접광고 상품을 쉽게 알 수 있는 수준으로 모자이크 처리를 한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참고로 지상파의 경우 간접광고 상품의 노출 시간의 합이 전회 줄거리 및 예고까지 포함해서 전체 방송 시간 5/100을 초과하면 위반이다. 예를 들어 전체 방송 시간이 33분 20초(2,000초)인 드라마의 경우 간접광고 노출 허용시간은 100초 이내로 이를 초과하면 안 된다.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와 강원랜드의 협찬고지는 아예 불가능한가?

원칙적으로 한국마사회와 강원랜드 등은 공공기관이지만 도박 같은 사행산업 시행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가 금지돼있다. 하지만 공익성 캠페인이나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에는 협찬고지가 가능하다. 다만 이때도 협찬주명만 고지할 수 있다. 일레로 제주마(馬)를 소중히 지키자는 내용의 공익성 캠페인을 방송하면서 하단 자막으로 협찬주 한국마사회의 사업 브랜드인



‘Let’s Run’를 노출한 바 있는데 이에 방통위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공익성 캠페인일지라도 협찬주인 ‘한국마사회’ 고지만 허용될 뿐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고지는 금지라는 것이 방심위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의료법 제56조에 의해 의료기관, 의료법인, 의료인도 협찬고지가 금지돼있다. 방송 엔딩 스크롤에 촬영 장소로 병원 이름을 노출하는 것도 안 된다. 단 국립대 병원처럼 공공 의료기관은 공익성 캠페인이나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에 협찬주명만 고지할 수 있다.

협찬고지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개정 전	10월 개정 후
협찬고지 시점	방송프로그램 종료시 협찬 고지 가능	방송프로그램 종료시 1회에 한해 협찬고지 가능
협찬고지 내용	협찬주명(로고포함)·기업 표어상품명·상표 또는 위치	협찬주명(로고포함)·기업표어상품명·상표·홈페이지 주소 또는 위치
협찬고지 위치	화면 하단	화면 하단 또는 우측
행사·프로그램 예고 협찬고지 횟수	중앙지상파 1회, 지역지상파 2회, 유료방송 3회	중앙지상파 2회, 지역지상파 3회, 유료방송 3회

패기 있는 도전과 신선한 시도! 드라마의 미래, KBS에 있다

드라마에선 보기 드문 결말이었다. 노량진 고시촌에서 일어난 연쇄 살인 사건. 범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극중 내내 사건을 외면하던 주인공이 마지막 희생양이 되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으로 막을 내렸다. <드라마스페셜 2018-잊혀진 계절> 이야기이다. 지난 9월 14일부터 매주 1편씩, 10주간의 여정을 시작한 <드라마스페셜 2018>이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소재로 호평을 받고 있다. 하루에도 수십 편씩 비슷한 드라마가 쏟아지는 요즘, 진부하지 않은 스토리라인과 작품마다 독특한 개성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는다. <드라마스페셜>은 매년 가을 KBS가 시청자에게 선보이고 있는 단막극 시리즈로 한국 드라마의 미래를 책임질 신인 제작자들의 데뷔 무대이기도 하다.



신인 연출자·작가 데뷔의 장, 신선한 작품으로 호평

올해 <드라마스페셜>은 로맨틱 코미디, 사회장르물, 판타지 수사물, 청춘 스포츠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와 소재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 KBS 단막극 극본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나의 흑역사 오답노트>와 가작을 수상한 <미스 김의 미스터리> 등이 라인업에 올랐고 김민태, 송민엽, 유영은 PD가 입봉작으로 각 두 편의 단막극을 준비했다. 앞서 언급한 <잊혀진 계절>은 김민태 PD의 데뷔작이다. 김민태 PD는 “마이너한 결말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단막극이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었고 입봉작이어서 제 생각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좋은 드라마를 하고 싶다는 꿈을 안고 입사했는데, 첫 연출을 통해 이제 반을 이뤘다는 생각이 들고 흥가분함보다는 두 번째 작품인 <너와 나의 유효기간>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단막극의 명맥 이어가는 KBS <드라마스페셜>

단막극은 재능 있는 신인 연출자와 작가를 발굴하고 이들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참신한 시도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창구다. 드라마 산업이 급성장하고 대형 미니시리즈 중심으로 시장이 개편되면서 주요 방송사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단막극을 점차 축소해왔으나, KBS는 지상파 3사 중 유일하게 단막극 시리즈를 유지해오고 있다. 미니시리즈 <굿닥터>, <김과장>의 박재범 작가, <구르미 그린 달빛>의 김민정 작가 등도 KBS 단막극 시리즈에서 필모그래피를 시작했다. 특히 이번 <드라마스페셜>은 일요일 밤에서 금요일 밤 시간대로 자리를 옮겼다. 각종 예능과 드라마가 총출동하는, 가장 치열하고 핫한 시간대다. 그만큼 시청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의미의 편성이다. 지난해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차세대 방송용 콘텐츠 지원 사업에 선정된 <드라마스페셜>은 UHD/HD 동시방송으로 더욱 고품질의 방송을 제공한다. **▶ 매주 금요일 밤 10시, 2TV**

<드라마스페셜 2018> 라인업

방송일자	작품명	내용
9/14	나의 흑역사 오답노트	수능출제위원으로 선발된 수학 교사 도혜(전소민 분)가 합숙소에서 인생의 흑역사인 전 남편 진상(오동민 분)과 필승(박성훈 분)을 만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발랄하게 그린 로맨틱 코미디
9/21	잊혀진 계절	오랜 수험생활로 주변 일엔 무관심한 은재(고보결 분), 어느 날 옆방 수험생이 사체로 발견되는데... 노량진 고시촌에서 벌어지는 살인 사건으로 인간 심리를 들여다보는 생활밀착형 심리스릴러
9/28	참치와 돌고래	동네 수영장에서 만난 우진(정건주 분)에게 첫눈에 반한 27년차 모태솔로 현호(박규영 분)를 돕기 위해 같은 반 회원들이 '참치와 돌고래'라는 모임을 만들며 벌어지는 알콩달콩 로맨스
10/5	너무 한낮의 연애	19년 전, 연애라고 말하기도 연애가 아니라고 하기에 묘한 관계를 가진 두 남녀 양희(최강희 분)와 필용(고준 분)이 우연히 재회하면서 벌어지는 감성 멜로
10/12	미스 김의 미스터리	열혈 신입사원 미스 리(권혁수 분)에게 특별한 첫 임무가 주어졌다. 회사 기밀을 빼내려는 산업 스파이를 찾는 것! 미스터리한 미스 김(다솜 분)의 정체를 밝히는 오피스 활극
10/19	이토록 오랜 이별	8년 째 연인, 이나(장희진 분)와 상희(임주환 분)는 꿈도 추억도 모두 함께 살아왔지만 세월이 지쳐 결국 이별을 맞이하는데, 오랜 연인의 사랑과 이별을 현실적으로 그린 드라마
10/26	도피자들	꿈으로 도피해 현실의 아픔을 잊으려는 지욱(이학주 분)이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세영(김새벽 분)을 만나 꿈 속 세계와 현실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판타지 드라마
11/2	엄마의 세 번째 결혼	세 번의 파혼과 두 번의 이혼에도 다시 사랑에 빠진 철 없는 엄마 은영(이일화 분)과 엄마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딸 은수(이열음 분)의 이야기를 담은 가족 드라마
11/9	너와 나의 유효기간	2008년 대학 동아리에서 처음 만난 현수(신현수 분)와 승연(이다인 분), 둘은 10년이 지난 어느날 우연히 다시 재회하게 되는데...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10년 전 그 시절의 이야기
11/16	달을 듯 말 듯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명으로 컬링 국가대표 유망주에서 후보 선수로 전락한 영주(박유나 분)가 고향으로 내려와 한때 짝사랑했던 성찬(김민석 분)과 파트너로 얽히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청춘 스포츠 드라마



글로벌 공영방송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PBI 서울총회 2018 (10/23 ~ 10/25)



PBI Public Broadcasters International SEOUL 2018



유럽방송연맹(EBU) 장 폴 필리포 영국 BBC 토니 홀 일본 NHK 우에다 료이치 스위스 SRG SSR 질 마르상

PBI 서울총회 2018 주요 일정

10/23 (화)	행사	환영 리셉션
	행사	2018 PBI 서울총회 평화음악회
10/24 (수)	개막	이미 와 있는 미래
	스페셜 세션	분쟁지역에서의 공영방송 역할
		오찬
	세션1	연결 플랫폼과 미디어 빅뱅
	세션2	진화하는 미디어 생태계를 위한 콘텐츠 전략
10/25 (목)	세션3	TV의 미래, 시청자를 위한 UHD
		공식 만찬
	세션4	연결 플랫폼 시대 공영방송의 가치와 존재 이유
	세션5	젊은 시청자 리서치 1.0
	폐막	폐회 및 차기 개최사 소개
	행사	문화시찰(DMZ)

11년 만의 서울총회, BBC 사장, NHK 회장 등 참석

전 세계 공영방송의 현재를 짚어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PBI(Public Broadcasters International) 서울총회가 KBS 주최로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총회는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되며, '플랫폼 대전환, 공영방송의 미래 전략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영국 BBC, 일본 NHK, 미국 PBS, 캐나다 CBC 등 총 30여 개국 100여 명이 함께한다. 특히 유럽방송연맹(EBU) 장 폴 필리포 회장을 비롯해 영국 BBC의 토니 홀 사장, 일본 NHK의 우에다 료이치 회장 등 주요 국제방송기구 수장들이 서울을 찾을 예정이며 KBS는 이번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한국 공영방송의 글로벌 위상을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각인시킬 예정이다.

한반도 평화 특별 세션·평화 음악회 등 개최

이번 PBI 서울총회에는 한반도 평화 무드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남북한 사회 통합을 위한 공영방송의 역할을 조명하는 특별 세션도 마련된다. 총회 둘째 날인 10월 24일 오전 '분쟁지역에서의 공영방송 역할'이라는 주제의 세션이 진행된다. 또, 23일 저녁에는 'PBI 서울총회 평화음악회' 통해 하나의 민족이라는 숙원과 평화에 대한 염원을 전할 예정이다. 평화 음악회에는 소리꾼 장사익, 소프라노 한경미를 비롯해 가수 레드벨벳, 휘성, 팜페라 그룹 포레 스텔라 등이 출연한다. 이날 공연은 10월 28일 일요일 오후 5시 40분부터 1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PBI(Public Broadcasters International) 1990년 KBS와 NHK, CBC 등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창설한 국제공영방송기구로, 매년 정기 포럼을 갖고 공영방송의 역할과 비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다.



KBS의 일자리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10월 7일 첫 방송된 <사장님이美쳤어요>는 숨겨진 보석 같은 중소기업들을 소개함으로써 청년 구직자들과 중소기업 간의 인식 차이를 줄여나가고 일자리 매칭이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KBS, 청년 일자리 행기기에 앞장서

청년 실업자 44만에 육박하는 이 시대. 청년 실업자들에게 가장 뜨거운 화두는 '취업'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취업을 하려는 기업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1%밖에 되지 않는 대기업이다. 정작 99%의 중소기업들은 인재 부족을 겪고 있다. 취업 준비생들은 왜 대기업만 '취업하는 곳'으로 생각할까? 대기업에 대한 정보는 많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KBS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중소기업 인식 개선 일자리 프로젝트의 하나로, '미래를 이끌 존경받는 기업'에 선정된 10곳의 중소기업들을 <사장님이美쳤어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한다. KBS는 청년 구직자들의 인식은 개선하고 나눔과 공유의 동반성장의 기업문화가 경제 전반으로도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다할 예정이다.

사장님의 천기누설!... 통통 튀는 재미와 알찬 정보

첫 방송된 <사장님이美쳤어요>에서는 10곳의 선정 기업 중 2곳인 온라인 교육전문 기업 '휴넷'과 국내 최초 자체 기술로 시리얼을 생산하고 있는 '씨알푸드'가 소개됐다. 아나운서 도경완과 이정민이 MC를 맡았으며, 연예인 패널은 방송인 김형규, 서유리, 개그맨 이상훈, 김효진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에는 매회 한국중소기업학회 이사,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소장, 기업전문가 등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출연한다. 시사교양 프로그램이지만 젊은 층을 겨냥해 회사를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웹 드라마 형식으로 재미 요소까지 더했다. 각 회사의 사장들과 직접 이야기하기도 하며, 실제로 그 회사에서 추구하는 인재상 소개, 입사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방청객들로는 매회 소개되는 2곳의 회사에 실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초대되어 보다 솔직하고, 사실적인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다. 1~5회 동안은 기업들을 살펴보고 6회에서는 종합편으로 특별게스트와 함께하는 스페셜 코너들이 준비되어있다.



‘전통문화 제작기지’... 전주방송총국 개국 80주년

KBS 전주방송총국 방송80년
2018. 10. 1



전주방송총국이 지난 10월 1일 개국 80주년을 맞았다. 1938년 일제강점기 소규모 ‘이리방송국’으로 시작한 전주방송총국은 해방 이후 전주로 이전한 뒤 지역의 전통문화 특히 국악 프로그램의 제작기지로 역할을 다하며 전북 지역 주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80주년을 기념해 전주방송총국에서는 지역 특색이 가득한 다양한 개국특집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전통 국악 무대를 보여주는 개국특집 <국악한마당>과 국악과 대중가요의 콜라보로 퓨전 음악 장르를 선보이는 <콘서트 나빌레라>가 있으며, 각각 10월 20일과 30일 방송을 통해 국악의 매력을 알릴 예정이다. 10월 1일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양승동 사장은 “전주총국은 전통적으로 그 어느 지역국 못지않은 뛰어난 프로그램 제작과 취재 능력을 보여준 곳이다”라고 축사를 했고, “공영방송 KBS가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지역 방송 활성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해피선데이-1박 2일〉 대통령 표창 수상!

KBS 대표 장수 예능 프로그램 〈해피선데이-1박 2일〉이 지난 9월 27일 관광의 날을 맞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국내 관광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해피선데이-1박 2일〉은 2007년 8월 첫 방송 이후 10여 년 동안 전국의 다양한 여행지와 숨은 명소를 찾아다니며 소개하는 등 매주 웃음은 물론 진정성 있는 감동까지 안기며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팀의 대표로 수상한 김종민은 “너무 영광스럽다. 10여 년 동안 정말 많은 곳을 다녔지만, 국내에 아직 소개해 드리지 못한 아름다운 명소가 많다. 앞으로도 발 빠르게 방방곡곡을 누비며 안방극장에 큰 웃음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청자들과 함께 웃고 울며 세대를 초월한 국민 예능으로서 10여 년의 길을 걸어온 〈해피선데이-1박 2일〉은 ‘1박 2일 판문점 가다’, ‘글로벌 시청자 투어’ 등 매회 새롭고 설레는 여행 에피소드 속에 꾸밈없는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며 매주 주말 예능 정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방송총국 김희철 사우 동화 「소리당번」 발간



광주방송총국 기술국 김희철 사우가 쓴 동화 「소리당번」이 2018년 광주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출간됐다. 9살 때 포도막염을 앓아 실명한 소녀 ‘세리야’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동화 「소리당번」은 시각장애 어린이들의 꿈과 우정을 그리고 있다. 암흑으로 변해 버린 세상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 나가 어두워지지 않는 ‘마음의 눈’이 열리는 성장기이다. TV 기술 감독으로 재직 중인 김희철 사우는 방송 녹화 때 알게 된 수화선생님들의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고 홀로 기차를 타고 가는 시각장애인의 동의를 구해 동행하며 「소리당번」을 만들었다. 장애 어린이의 홀로서기를 그린 첫 작품 「보랏빛 나팔소리」 이후 두 번째 동화를 발간한 김희철 사우는 다음 작품으로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다.

‘KBS와 페미니즘’ 성평등을 위한 공영방송의 역할은?



KBS 방송문화연구소는 지난 5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사내에 내재된 성차별과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하기 위해 ‘KBS와 페미니즘’이란 주제로 ‘공영방송발전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 김수아 서울대 기초대학원 교수는 KBS 역시 타 지상파나 종편과 마찬가지로 출연자들의 성비가 한쪽으로 쏠려있음을 지적하고,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소극적 공익성’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성평

등, 인권문제 등에 대한 공론의 장 기능을 강화하는 ‘적극적 공익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윤상 선임 KBS 성평등센터장은 “KBS는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방송사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 KBS 내에 성평등, 인권, 탈권위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TV 난시청 민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도입

TV 난시청 민원에 대한 고객 만족 피드백 시스템이 도입됐다. KBS 수신기술운영부는 이번 달 1일부터 TV 난시청 민원처리에 대한 카카오톡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동안 민원이 등록되는 ‘수신료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민원 해소는 가능했지만, TV 난시청 민원 해결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카카오톡(카카오 ID: KBS해피콜)을 통해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가 축적되면 지역별, 연령별 서비스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일정

일정	내용
10월 1일(월) ~ 10월 11일(목)	사장 후보자 공고·서류접수
10월 27일(토) 잠정	시민자문단 공개 설명
10월 31일(수)	이사회 면접 후 후보자 최종선정



KBS2 TV 월화드라마

최고의 이혼

현실 공감 러브 코미디 <최고의 이혼>

2018년 하반기 최고의 기대작이 나타났다. 시청자들에게 '결혼은 정말 사랑의 완성일까?'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는 KBS 드라마 <최고의 이혼>은 사랑, 결혼, 가족에 대한 남녀의 생각 차이를 유쾌하고 솔직하게 그리는 로맨틱 코미디다. <최고의 이혼>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맞지 않는 부부가 등장한다. 바로 조석무(차태현 분)와 강휘루(배두나 분)가 그 주인공이다. 간간한 데다 까칠하기까지 한 남자 조석무와 그에 비해 웃음 많고 덜렁거리는 여자 강휘루. 극과 극 성격의 부부로 호흡을 맞추는 두 배우의 모습은 안방극장에 현실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킬 예정이다. 핑크빛 설렘이 가득했던 두 사람이 헤어짐의 과정을 통해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찾아가게 될지, 드라마 속에서 펼쳐질 전무후무한 이혼 로맨스가 기다려진다. 이와 함께 등장하는 또 다른 부부 진유영(이엘 분)과 이장현(손석구 분). 조석무의 첫사랑이었던, 내성적이고 위태로워 보이지만 외유내강의 진유영과 주변에 여자가 끊이지 않는 마성의 남자 이장현, 전혀 다른 두 부부가 인연을 맺고, 또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한껏 자극한다.

차태현X배두나, 이엘X손석구가 뭉쳤다, 4인4색 매력발산

믿고 보는 배우 차태현, 8년 만에 지상파 안방극장에 복귀하는 할리우드 뮤즈 배두나, 독보적인 색채를 지닌 이엘, 대세 신예 손석구까지, 매력적인 배우들의 캐스팅만으로도 방송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최고의 이혼>.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바로 4인 4색 캐릭터들의 케미스트리다. 핑퐁처럼 주고받는 대사들과 네 배우가 만드는 전혀 다른 감각의 부부 이야기가 신선한 재미와 의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KBS 드라마 <최고의 이혼>은 2013년 일본 후지 TV에서 방영됐던 동명의 드라마가 원작으로 <브레인>, <내 딸 서영이>, <착하지 않은 여자들> 등에서 탁월한 연출력을 인정받은 유현기 PD와 공감가는 대사들과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어 내는 문정민 작가가 의기투합하여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매주 월, 화요일 밤 10시, 2TV